



포이에미[예수교회] 가정예배 순서지



야곱의 축복

찬양 | 야곱의 축복

기도 | 하나님, 오늘도 우리 가족을 한자리에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. 세상에는 어려운 일도 많지만,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.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배우게 해 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
말씀 읽기 | 창세기 47:13~16

◆ 배경: 오랜 흉년이 이어져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. 사람들이 먹을 것을 사러 요셉에게 물러옵니다.

[개역개정] ¹³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¹⁴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¹⁵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¹⁶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족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족과 바꾸어 주리라

[쉬운성경] ¹³ 가뭄이 더 심해져서 온 땅 어느 곳에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.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은 가뭄 때문에 살기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. ¹⁴ 요셉은 이집트와 가나안의 돈이란 돈은 다 모아들였습니다. 사람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요셉에게 돈을 치렀습니다. 요셉은 그 돈을 파라오의 왕궁으로 가지고 갔습니다. ¹⁵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이집트와 가나안 땅 사람들의 돈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.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나아가 “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. 돈이 다 떨어졌다고 해서 총리님이 보시는 앞에서 죽을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?” 하고 말했습니다. ¹⁶ 요셉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 “돈이 다 떨어졌다면, 가족을 가지고 오너라. 그러면 먹을 것을 주겠다.”

1.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소리 내어 **2번** 읽습니다.
2. 말씀이 마음에 남도록 천천히 눈으로 **1번** 읽습니다.
3.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은 쉬운성경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.



1. 요셉이 살던 시대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?
2. 양식이 떨어진 사람들은 누구에게 찾아왔나요? 그리고 무엇을 달라고 했나요?

삶의 이야기 |

1. 흉년이 오기 전 하나님은 미리 요셉을 준비시켜 두셨어요.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“이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거였구나” 하고 느낀 일이 있다면 한 가지씩 나눠 봅시다.
2.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을 때 요셉을 찾아갔어요. 나는 힘들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찾나요?

축복 | ()이/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그리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해!

마침기도 | 하나님,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해 주세요. 우리 가족에게 먹을 것, 입을 것, 잠잘 곳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해 주세요.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게 해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


포이에미[예수교회] 가정예배 순서지



하나님은 너를
지키시는 자

찬양 |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

기도 | 사랑의 하나님,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살아가면서 미운 마음,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.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용서가 무엇인지,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배우게 해 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
말씀 읽기 | 창세기 50:18~21

◆ 배경: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, 형들은 “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는 거 아닐까?” 하며 두려워했어요. 그래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.

[개역개정] ¹⁸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¹⁹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²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²¹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

[쉬운성경] ¹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요셉에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. “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.” ¹⁹ 그 말을 듣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. “두려워하지 마십시오.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? ²⁰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,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. ²¹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.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아이들을 돌봐 드리겠습니다.” 이처럼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 주었습니다.

1.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소리 내어 **2번** 읽습니다.
2. 말씀이 마음에 남도록 천천히 눈으로 **1번** 읽습니다.
3.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은 쉬운성경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.



질문나눔

1. 형들은 왜 요셉 앞에 엎드려서 “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”라고 말했을까요?
2. 요셉은 자기에게 나쁜 일을 한 형들을 어떻게 대했나요? 어떤 말로 위로했는지 찾아봅시다.

삶의 이야기 |

1.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셨다고 말했어요. 나에게도 “그땐 속상했는데 지나고 보니 좋았던” 일이 있나요?
2. 지금 미운 사람이 있나요? 요셉처럼 “하나님이 다 아셔” 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맡겨 볼까요?

축복 | ()이/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축복해!

마침기도 | 하나님,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우리 가족이 서로 미워하지 않게 해 주시고,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도 요셉처럼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